

Kodex^{ETF}와 함께 만드는 Viewtiful Week

WEEK 01
NOV 2024

Executive Summary

- 대선(5일): 지지율 접전으로 5일 이후에도 대선 관련 불확실성 지속될 수 있음
- FOMC(7일): 고용 부진에 대한 연준 스탠스와 내년 금리 인하 경로 제시 여부에 관심
- 일드캡은 주식 매력도 후퇴를 시사. 변동성 장세에 단기채 ETF로 대응할 필요

●●● 이번 주엔 무엇을 볼까

10월 고용 쇼크와 ISM 제조업 부진에도 시장 금리는 상승

지난주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를 시현했다. 10월 비농업 고용은 전월비 1.2만 명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10만 명)과 전월치(22.3만 명)를 대폭 하회했다. 단,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4.1%를 기록하면서 금번의 고용 부진은 허리케인 헬린(9/26)과 밀턴(10/9), 보잉사 파업 등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ISM 제조업 지수도 46.5를 기록하며 7개월째 기준선 50을 하회했다. 한편, 경기를 선행하는 신규주문-재고 스프레드가 2개월 연속 반등하고, 트럼프 트레이드가 강화되면서 시장금리는 이번주도 상승했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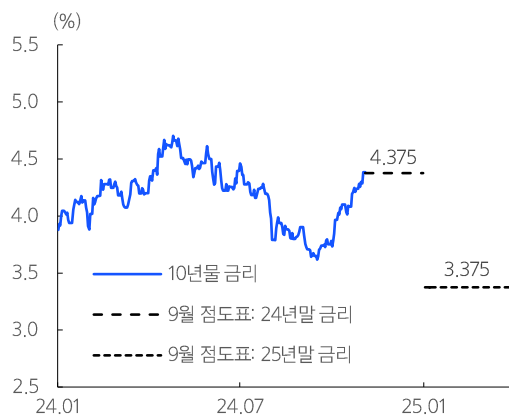
슈퍼 위크: 대선과 FOMC에 따른 변동성 장세 불가피

이번 주는 미국 대선(11/5, 현지시간)과 FOMC(11/7)가 예정된 슈퍼위크다. 미국 대선은 두 후보의 지지율 접전으로 결과 확정까지 수일이 걸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일 예정된 FOMC 관전포인트는 10월 고용 부진에 대한 연준의 판단과 향후 금리 인하 경로 제시 여부다. 11월 25bp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선물시장은 올해와 내년 각각 2회(50bp), 3회(75bp)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 중이다.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는 고용 시장을[그림2] 강조할 경우 시장 금리의 상승 동력은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하방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근원 물가나 임금상승률을 언급할 경우 금리는 현 수준의 높은 레벨이 유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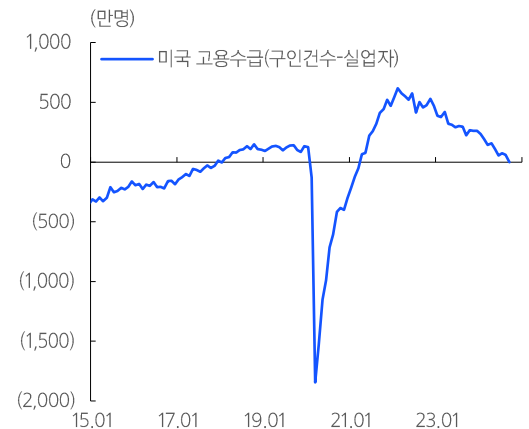
중국 전인대 상무위도 모니터링 필요

중국 전인대 상무위(11/4~8)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중국 정부는 내년 5% 안팎의 성장을 달성을 위한 재정적자 비율, 특별 국채 발행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11/11)을 앞두고 재정정책이 서프라이즈로 평가될 경우 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림1] 10년물: 24년말 금리(9월 점도표) 도달 [그림2] 미국 고용 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삼성 Kodex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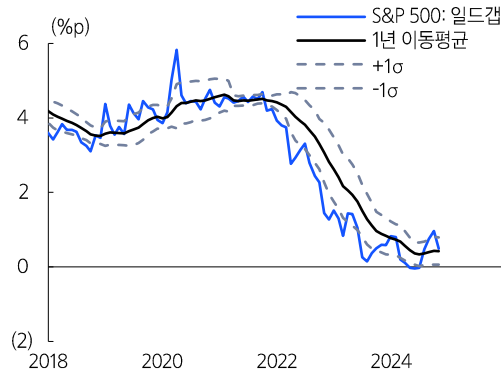
엔비디아 실적까지 AI 테마 중심으로 관망세 짙어질 수 있어

지난주 실적 발표를 통해 빅테크들의 AI 관련 Capex 투자 기조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AI의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슈퍼마이크로컴퓨터 급락 등으로 AI 테마 과열에 대한 경계는 잔존한 상태다. 20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AI 테마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

대선과 FOMC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아: 단기채 ETF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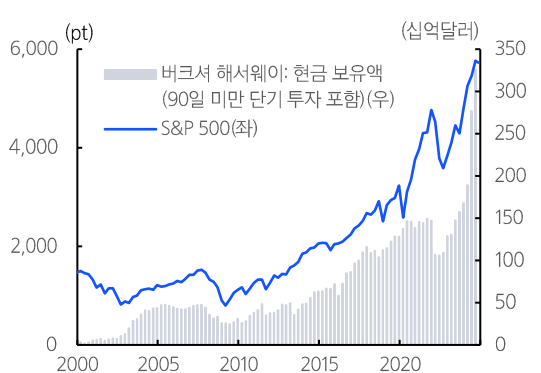
대선 결과 확정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과 결과 불복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 대선(5일) 이후에도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 한편, S&P 500 일드갭은 1년 이동평균 수준으로 회귀했다. S&P 500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률(12개월 선행 PER의 역수)에서 2년물 금리를 차감해 추산한 일드갭은 기대 수익률 하락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채권 대비 주식 투자 매력도가 재차 감소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를 예견했던 것일까,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3분기 현금 보유액은 3,252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결론적으로, 대선과 FOMC 확인 후 포지션 재정비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다. 당분간 단기채 ETF 활용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림3] S&P 500 일드갭: 1년 평균으로 회귀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그림4] 버크셔: 현금 보유액 역대 최대 규모



※ 자료 : Bloomberg, 삼성자산운용

●●● Viewtiful Week를 위한 삼성 Kodex ETF 3

01

Kodex
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488770)

MMF & 금리형 ETF 업계 순자산 1위가 만든 머니마켓 ETF(금투협, Dataguide, 6월 30일 기준)

- YTM 3.50%, 듀레이션 0.16년(11/4 기준)
- 주요 투자대상: 키움증권,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회사 단기채 등(11/4 기준)
- 총보수: 연 0.05%(운용 0.039%, AP 0.001%, 신탁 0.005%, 사무 0.005%), 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02

Kodex
CD금리액티브(합성)
(종목코드:459580)

매일매일 CD 91일물 금리가 쌓이는 안정성 높은 금리형 ETF

- CD 91일물: 3.43%(11/4 기준). 금투협에서 매일 16시 30분 발표하는 CD 수익률 사용
- 안정적인 성과 추구: 상장 이후 현재까지 1일 수익률 손실 無
- 총보수: 연 0.0318%,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117% 발생,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03

Kodex
단기채권PLUS
(종목코드:214980)

자유로운 환금성에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추구하는 ETF

- YTM 3.35%, 듀레이션 0.54년(11/4 기준)
- 주요 투자대상: 잔존만기 1년 이하의 국고채, 통안채, 특수채(AAA이상) 등
- 합성총보수: 연 0.1672%, FY2023 기준 증권거래비용 0.0005% 발생, 위험등급: 6등급(매우 낮은 위험)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나 본 자료의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관련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와 관련한 저작권은 삼성자산운용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본 자료를 복제 및 배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서 소개하는 투자방법은 개별 투자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본 자료를 참고한 일체의 투자행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의 결정에 의하여야 하며, 당사는 투자자의 판단과 결정,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외화로 표시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 전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구약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및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연금 외 수령시 세액공제 받는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익금 분배 방식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월지급액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투자 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